

- 사업명 : 2016년도 문예기금 창작뮤지컬육성 우수작품제작지원
- 실연심사 일정 및 장소 : 2016. 6. 22(수)~6. 24(금) 대학로예술극장 대, 소극장
- 심의회의 일시 및 장소 : 2016. 6. 24(금) 16:00, 대학로예술극장 리딩룸

2016년 ‘창작뮤지컬 육성 지원사업’ 우수작품제작지원은 대본공모와 인터뷰 심사를 통해 선정된 9편의 작품(대극장 3편, 소극장 6편)에 대해 초연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본공모 선정작을 대상으로 3개월간의 작품 수정 보완 과정을 지원하였고, 이번 시범공연 실연심사를 통해 최종 4편(대극장 2편, 소극장 2편)을 우수작품 제작 지원작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지난 인터뷰 심사가 대본, 악보, 음원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심사였다면, 이번 시범공연 실연 심사는 작품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30%), 공연작품의 예술성(40%), 공연단체의 역량(30%) 등을 기준으로 종합평가하여 선정하였다.

지원작의 선정유무를 떠나 이번 심사의 종합평가는 ‘시대극의 약진과 음악장르의 다양성’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총 9편의 지원작 중 특정 시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 다수를 이루었고, 음악적 표현양식 또한 클래식에서부터 스윙, 재즈, 락, 인도음악, 판소리에 이르기까지 스토리전개의 주요 역할을 맡아 창작뮤지컬의 표현경계를 확장했다는 평가다.

당시대의 특정 사건과 인물을 모티브로 삼은 작품들은 시간에 매몰되기보다 시대를 관통하는 보편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한 흔적들이 보였고, 그 중에 완벽한 보편적 주제와 시대극이 주는 표현의 생경함이 자연스럽게 탄탄한 구성으로 이어진 작품들이 눈에 띄었다. 하지만 동시대적 작품을 포함하여 실연심사를 통해 객석에 전달되는 소통능력에는 작품마다 차이가 있었고, 결국 작품완성도와 명확한 주제의식, 상업적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 생명력을 가지고 발전해 갈 수 있는 작품이라 판단되는 아래의 4편을 선정하게 되었다.

**<청년모험가회사 경성특사>**

탄탄한 이야기 구조와 대중의 호흡을 잘 계산한 듯 한 속도감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다만, 음악적 표현에 있어 추리물의 성격을 힘차게 받쳐주지 못하고 간혹 방해요소가 되는 부분이 있었고, 지나친 오브제의 사용 역시 캐릭터에 집중 할 수 있는 순간을 방해했다. 가사전달을 방해하지 않고 음악적 드라마가 충실히 쌓여 간다면 한국적 추리극의 신선한 작품을 기대해 볼 만 하다.

### <청춘 18대 1>

기존 청소년극의 단순접근 방식을 탈피하여 명확한 주제의식과 개연성을 갖춘 이야기 전개는 성인극으로도 손색이 없다. 시대적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다소 일본어를 많이 사용한 점과 ‘오음음계(Pentatonic Scale)’ 활용이 적절히 통일성 있게 잘 유지된다면, 국내 공공극장들에게 우수한 청소년극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광염소나타>

기본기를 갖춘 작품으로 클래식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의 신선함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다만 연주와 연기를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배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투어공연 혹은 지속적인 무대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 우려된다. 주인공의 내적갈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혹은 표현할 수 있는 음악적 요소가 이 작품의 핵심이다.

### <레드북>

작품의 시공간적 설정에 대한 우려를 탄탄한 플롯과 적재적소의 에피소드, 스토리 전개의 개연성 확보로 세련되고 재치 있게 잘 풀어냈다. 실연만으로도 잘 짜여진 뮤지컬 한 편을 보는 듯 했고 로맨틱 코미디 장르로 해석하기에 우수한 작품이었다. 음악적으로 극의 템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며 긴장감을 놓치지 않았다는 평가다. 실연심사라는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여자 주인공을 내세운 작품인 만큼, 마케팅 측면에서 남녀 양상블들을 활용한 코믹한 에피소드와 탄탄한 2막 구성이 뒷받침 된다면 상업적으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작품으로 판단된다.

이밖에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지원에 선정되지 않은 작품들 또한 일정 수준이 상에 도달한 작품들로, 시간과 재원의 꾸준한 지원이 허락한다면 언젠가는 우리나라 창작뮤지컬을 대표할 수 있는 작품으로서의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근래 들어 공공기관을 비롯한 여러 기업에서 다양한 형태로 무대공연 창작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매우 반가운 일이고 지속적이길 바라는 마음이다. 하나의 생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정성스러운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미약한 생명이 완벽한 독립체로 성장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관심 또한 필요하다. 2016년 ‘창작뮤지컬 우수작품 지원사업’이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 신중한 선택을 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을 쏟아야 할 때다.

창작뮤지컬 우수작품제작지원 심의위원 일동